

자살과 해체사회

김왕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전공

wangbae@yonsei.ac.kr

I. 머리말

II. 자살 현황과 유형

III. 세 유형의 자살 사건들

IV. 요약

I. 머리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과 인터넷을 통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동반자살, 그리고 전직대통령의 자살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경제협력 기구(OECD)가 발간한 200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해마다 대학 입학시험이 끝나고 나면 성적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수험생의 자살 현상이 정례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버리던 이른바 생계형 자살은 IMF 사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수년 전에는 대기업이나 관료들이 뇌물수취 혐의로 기소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하여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고령화와 가족해체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을 상실한 노인들의 자살이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조사는 한국 청소년의 상당수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여 잠재적 자살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익명의 자살충동자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 모여 시도하는 집단동반자살은 우리 사회를 가히 죽음충동의 사회로 묘사하는 데 이의가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한 지식인이 일갈했던 '죽음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자살의 유형과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자살은 정상성(normality)을 벗어난 행위로서 사회적인 충격과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급증 혹은 자살충동의 만연 현상은 자살 행위를 추동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사회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고 해도 자살 행위를 촉발하거나 유인하는 것은 사회적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자살은 그 사회가 앓고 있는 병리적 증상을 대변한다.

자살은 어느 사회나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유형은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업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수험생 자살과 유명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빈번한 자살, 가족동반자살이나 익명적 개인들의 집단동반자살 그리고 최근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예상치 못한 노인자살

등이다.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 경쟁, 학벌과 학력자본의 성취압박이 어느 사회보다 강한 한국사회에는 청소년들의 반복되는 자살로 그 병리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특수한 맥락을 안고 있고, 사회운동가들이나 조직의 지도자들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가족동반자살은 한국사회에서도 유별난 혈연적 결속주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가족집단적인 결속주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형태의 자살, 즉 익명적 타자들의 집단동반자살은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효(孝)와 장유유서(長幼有序) 등 유교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노인자살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이한 점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과장이 큰 세 유형의 자살, 이른바 ‘죽음의 정치’ 구도를 낳았던 전직대통령의 자살, 인터넷을 통한 집단동반자살,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증하고 있는 노인자살 등에 대해 주목해 볼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이러한 자살은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의 편차는 있으나 시간적인 반복성과 유사성 그리고 행위 분화(分化)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전직대통령의 자살은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통치 하에 민주화를 위해 저항해 온 일부 사회운동권 지도자층의 자살 연속선상에서, 인터넷 동반집단지살은 1960년대부터 보고되고 있었던 가족동반자살의 분화된 형태로, 그리고 오늘날 노인자살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에 가족 및 지원연줄망의 해체로 인해 간간히 발생하던 노인자살이 급증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나타난 세 유형의 자살은 아울러 현 시대의 한국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여전히 후진적으로 남아 있는 정치문화, 인터넷 집단자살은 가족형 결속주의와는 또 다른 측면의 집단성의 출몰, 노인들의 자살은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가족해체와 지원망 결여라는 사회적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건’으로서 이 세 유형의 자살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내면, 특히 ‘규범과 제도의 해체’라는 측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¹⁾

1) 물론 이 글에서는 자살이 사회해체의 현상이라는 일반적 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짚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다른 사회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특수성과 일반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자살 현황과 유형

현대사회에 이르러 점차 주변화되고 있는 죽음이 '사건'으로 규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죽음 중에서도 타자의 폭력행위로 빼앗긴 타살에 의한 죽음이나 스스로 목숨을 빼앗는 자살은 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사회적 사건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타살이나 자살 모두 정상성(normality)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의 규범을 벗어난 일탈적 행위이고, 이 일탈적 행위는 사회적 주목과 긴장, 감정동요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사건'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자살의 유형과 맥락에 따라 사건으로 인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살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이 현상이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게 되면 이는 사건으로 간주된다.²⁾ 최근 한국사회의 급증하는 자살률은 사건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자살공화국'으로 묘사될 만큼 최근 세계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자 수는 1990년도에 3,157명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1만 688명을 기록하고 있고 매년 자살사망률도 증가하여 23%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살 현황은 OECD국가군 중에서도 매우 높아 2007년 OECD 자료에 의하면 헝가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는 18.7명으로 OECD 평균(11.88명)을 크게 앞질러 헝가리, 일본과 함께 최상위권에 올라서 있다. 특히 여성 자살률은 11.1명으로 OECD 평균(5.4명)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면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평균 35명이

2) 자살이 하나의 '사건'인 이유는 자살이 존재와의 단절이라는 극단적 행위로서 다소간 비예측적이며, 사회나 집단에 큰 충격과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자살이 '사건사(史)'로 접근될 수 있는 이유는 자살이 모든 사회, 모든 시기를 통해 나타나는 통시적(通時的) 현상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사회 그리고 시대적 맥락에 따라 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은 그 기본적인 속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편재성(遍在性)을 갖는 동시에 국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건 혹은 사건사로서의 자살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돌릴 것이다. 사건사 등에 대한 논의로 채오병, 「사건사의 인식론과 방법론」, 『사회와 역사』 제83집(2009); P. Abram, *Historical Sociology*(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W. Sewell, "A Theory of Structure: Duality, Agency, and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1(1992); L. Griffin, "Temporality, Events, and Explanation in Historical Sociology",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0(1992) 등의 논의를 참고할 것.

표1-자살자 수 및 자살사망률 추세

연도	자살자 수(명)	자살사망률	연도	자살자 수(명)	자살사망률
1990	3,157	9.8	1999	7,075	16.1
1991	3,066	9.1	2000	6,431	14.6
1992	3,533	9.7	2001	6,933	15.5
1993	4,123	10.6	2002	8,631	19.1
1994	4,211	10.5	2003	10,932	24.1
1995	4,840	11.6	2004	11,523	25.2
1996	5,865	13.9	2005	12,047	26.1
1997	6,022	14.1	2006	10,688	23.0
1998	8,569	19.9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³⁾

통계청은 자살요인을 건강, 경제적 이유, 우울증 등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살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경제적 요인은 자살의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자살과 ‘경제적 조건’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자살연구들은 지난 1997년 이른바 ‘IMF 사태’로 불리는 경제위기 이후,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2000년대 중반경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실업, 빈곤, 소득감소, 저성장 등의 경제요인이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따지고 있다.⁴⁾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자살을 접근하는 연구들,⁵⁾ 그리고 청소년 자살 혹은 자살충동의 연구,⁶⁾ 노인자살 연구⁷⁾

- 3) 2005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률이 7,776명인 데 비해 자살자 수는 1만 2,047명이다.
- 4) 은기수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권 2호(2005), 97-129쪽;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이론검증을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권 4호(2004), 33-71쪽; 유경원·노용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살률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18권(2007), 59-78쪽.
- 5) 박종순·김순덕·지선미·이제숙, 「우리나라 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25권 2호(2004), 84-91쪽; 오진경·조영태·김창엽, 「2000년 우리나라 성인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징」, 『보건과 사회과학』 18권(2005), 191-210쪽; 이귀행,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권 1호(2004), 11-14쪽; 홍성철·김문두·이상이, 「사회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4권(2003), 249-271쪽; 박경애, 「성(Gender)과 자살」, 『가족과 문화』 1권(1999) 149-171쪽.
- 6) 김현순,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권 1호(2009), 203-225쪽; 김현주, 「수험생의 자살 및 가출 충동 관련요인: 성적, 자기평가, 부모의 지원」, 『가족과 문화』 1권(1999), 127-148쪽; 노혜린·김형태·이중

표2-OECD국가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국가	연도	자살률	국가	연도	자살률
한국	2006	21.5	영국	2004	6.3
오스트리아	2005	13.8	포르투갈	2003	8.7
아일랜드	2005	9.2	헝가리	2003	22.6
네덜란드	2004	7.9	프랑스	2003	15.3
독일	2004	10.3	호주	2003	10.2
룩셈부르크	2004	12.5	미국	2002	10.2
체코	2004	13.0	스웨덴	2002	11.4
핀란드	2004	13.0	슬로바키아	2002	11.9
그리스	2004	2.6	이탈리아	2002	5.6
노르웨이	2004	10.9	캐나다	2002	10.6
스페인	2004	6.6	덴마크	2001	11.3
아이슬란드	2004	11.7	뉴질랜드	2001	13.0
일본	2004	19.1	벨기에	1997	18.4
폴란드	2004	14.0	멕시코	1995	3.8
스위스	2004	14.0			

주: 1)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연령구조 차이가 제거된 국제간 비교를 위해서 OECD 기준인구로 표준화한 사망률.

2)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자료: OECD Health Data(2007).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살률의 추이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상관성, 혹은 영향력을 밝히는 정도에 치중하고 있고, 그 기저요인으로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속성과 연계하는 작업은 매우 드물다. 일찍이 사회학자 뒤르케임(Durkheim)은 비록 자살은 개인적 현상이지만 그 행위의

의,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학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권 1호(2005), 5-34쪽; 박경애·이재규·권해수, 「청소년 동반자살」, 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1』(1998); 이정윤·허재,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위험요인」, 『청소년 상담연구』 11권 2호(2003), 85-95쪽; 최병목·강대기·박태영·손연기, 「학생자살의 원인 분석 및 방지방안 연구: 1998-2000년 경기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전 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2001), 369-392쪽; 정영순, 「한국 고등학생들의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4권 3호(2001), 346-374쪽; 최준영,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관련 태도」, 『사회 연구』 14권(2007), 223-238쪽.

7) 김형수,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23권 2호(2000) 167-187쪽; 박지은·정영,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발전연구』 10권 1호(2005), 39-59쪽; 유정균,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가족불안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1995-2005」, 『한국인구학』 31권 2호(2008), 21-44쪽.

배경에는 사회적 사실로서의 구조적 속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개개인의 자살이 심리적 요인이나 생물학적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 속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는 자살을 이타적 자살, 반대로 통합의 정도가 낮아서 생기는 자살을 이기적 자살, 그리고 무규범의 사회혼돈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아노미형 자살로 분류하고 사회적 통합과 규범이라는 사회의 구조적 속성이 개개인의 자살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려 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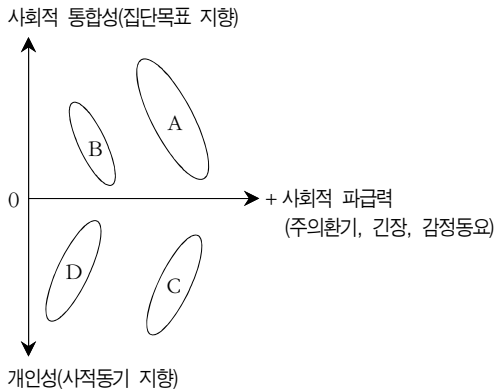


그림1-자살 유형의 분류

뒤르케임의 자살 유형을 참고하여 사건을 규정하는 요인들로서 주의환기와 긴장, 파급력 등을 고려한다면 사건으로서의 자살 유형은 위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 파급력을 한 축으로 하고, 그 자살 행위가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것인지, 개인적 이유인지를 각기 다른 한 축으로 삼아 몇 가지 유형의 자살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급력은 그 자살이 타인들로부터 주목받는 주의환기의 정도,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긴장과 감정동요(혹은 반응)의 정도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고, 집단목표 지향적인 것과 개인적 이유는(물론 양자는 현실적으로 중첩될 수 있다) 그 자살의 규범성, 뒤르케임에 의하면 사회적 집단통합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⁹⁾ 사회적

8) E. Durkheim, *The Suicide*(Free Press, 1984).

9) 물론 이 글에서는 실증적으로 그 양(量)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살이 사회적

과급력이 크면서도 그 자살의 동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유형(C 유형: 유명연예인의 자살 혹은 인터넷 집단동반자살 등), 사회적 과급력이 크면서 집단목표 지향적 요소도 역시 큰 유형(전직대통령의 자살 등), 사회적 과급력은 작지만 사회적 규범성이 큰 유형(무명 사회운동가의 자살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작으면서 개인적인 동기가 큰 자살(실직가장의 자살 등)로 유형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규범의 와해 혹은 안정망 등의 해체로 인한 아노미적 상황은 C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것이다. 집단동반자살이나 노인자살 등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머리말에서도 한정한 바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과급력)이 큰 A와 C의 유형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직대통령의 자살, 인터넷 집단동반자살, 그리고 노인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III. 세 유형의 자살 사건들

자살은 통계적으로 나열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주기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많은 경우 일상화된 사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살 중에서도 특별한 유형의 자살, 특히 비(非)예측적인 돌발성과 사회적 충격이 큰 사례의 자살들은 시대의 '사건'이 된다.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최근의 자살현상으로서 '사건'으로 인지되는 몇 가지 사례를 논의해 보기로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대로 세 유형은 사회적 영향력(주의환기, 긴장, 감정동요)이 큰 A와 C 유형을 본 것이다. A의 유형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서 사회규범성(집단규범성) 동기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대의명분형 혹은 사회저항형 자살로 이름붙이고자 한다. 두 번째 유형인 C의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익명의 타자들이 모여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로 이를 '익명적 집단동반자살'로, 같은 유형에 속하면서도 개별화된 노인들의 자살을 '해체사회형 노인자살'로 이름지을 것이다.

론의 주된 담론이나 이슈로 제기되거나, 혹은 연구자에 의해 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사회적 과급력이 큰 자살유형으로, 그 자살이 사회나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리라 본다.

1. 대의명분형 자살

자살은 사회저항수단의 행위로 행해지기도 한다. 자신보다는 집단의 이해관계나 가치, 이념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은 뒤르케임이 분류한 이타적 자살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집단결속이나 지향이념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발생하는 자살이다. 규범과 가치로서의 사회적 도덕(social morality)은 각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 집단에 대한 일정한 책무를 지우게 함으로써 행위의 범위를 제한한다. 일부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집단의 규범이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는데, 집단의 지도자층은 일반 성원에 비해 더 강력하게 사회적 도덕(집단규범)과 책임이 기대된다. 물론 지도자층들만이 강하게 사회적 도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등 집단주의적 결속을 강조하는 기계적 결속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적 도덕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¹⁰⁾ 이들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거나, 집단적 이해관계의 제고를 위해 극단적 행위로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자살테러단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자살은 집단구성원들의 공식의례를 통해 추모되고 기억되어 그 죽음의 의미가 재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0년대 한국현대사에서 노동운동의 획을 긋게 했던 전태일의 분신(焚身)자살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재생되고 있다. 그의 자살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을 조직화하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1990년대 초에 연이어 발생한 ‘사회운동권’ 투쟁가들의 자살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 199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외치며 연쇄적인 자살사건이 벌어져 커다란 사회적 충격에 쌓여 있었다. 이들의 자살을 두고 기존 지배적인 제도정치권과 재야(在野)의 사회운동권에서는 다양한 입장에서 이들의 죽음에 반응하였다. 사회운동권에서는 이들의 자살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반민주, 분단이라는 ‘민족적 모순’을 널리 알리기 위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열사’로 칭송하면서 사회운동과 변혁차원으로

10)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저항의 상징수단으로 자살을 행한 대표적 경우는 한일합방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지연의 자살일 것이다.

그 죽음의 의미를 승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 제도권은 이들의 죽음이 반정부 세력의 결집으로 진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이들의 죽음을 비도덕적 위협행위로 비하함으로써 자원동원의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였다.

정부는 '강기훈 유서대필'이라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이들의 자살이 순수한 민주, 통일염원의 동기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일부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여 죽음의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¹¹⁾ 정부는 일부 보수진영의 지식인들과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그들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의미의 기호(記號)를 생성하고 유포하여 운동권을 비도덕적이고 불순한 단체로 낙인 찍음으로써 국가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지식인들과 언론은 '죽음의 고통', '죽음의 배후'라는 용어를 동원하면서 이들의 자살 행위를 '목적을 위해 귀한 생명을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기술하고 보수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운동권 = 비도덕적 단체'라는 부정기호의 '전이 전략'을 통해 그 자살의 의미의 '맥락 감추기'를 진행하였다. 이른바 '자살'을 둘러싸고 정부, 사회운동권, 언론미디어, 일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저마다의 의미부여와 대응 방식으로 복잡한 세력교환이 발생하는 '죽음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¹²⁾

최근 한국사회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직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전후방위적 진행과정은 한국사회의 특징적인 정치권의 세력구도와 정치문화, 감정의 정치와 그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직대통령 자살의 배경은 보수정권과 그 지지세력, 진보정권과 그 지지세력들 간의 권력투쟁의 산물로 비춰진다. 권위주의적인 개발독재 시대에 한국사회는 형식적으로는 명문화된 민주주의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11)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1991년 5월에 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철 씨의 분신자살 이후 그의 지인이었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과 본인의 유서가 맞다는 정의구현사제단 및 재야세력 간에 벌어진 공방이었다. 강기훈 씨는 결국 검찰의 기소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만기 복역 후 출소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유서가 대필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

12) 강정인, 「정치·죽음·진실: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권 3호 (2002), 7-25쪽. 90년대 초·중반 이러한 자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가 그 주목의 강도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간간히 이러한 유형의 자살은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노동운동 지도자 중에는 강렬한 저항의 수단으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 이후로도 이어졌다.

있었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구(state apparatus)들이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 동원되어 왔으며 검찰은 그러한 국가기구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한국사회에는 오랜 관행으로 고착되어 온 정경유착의 교환행위, 즉 대기업과 정치권이 상호간 자원을 주고받는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치연결망은 정치세력들에 의해 형성되고 보존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는 아이러니(irony)가 연출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 정권의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검찰은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구 정권의 '유산'을 일소(一掃)하는 정치숙청을 단행해 왔던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다양한 이념과 정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긴장 등의 갈등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최고 권력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조정되는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안고 있었다.

부정부패의 명분 아래 검찰은 이른바 '전직대통령의 목'을 겨냥했지만 그 바탕에는 일련의 촛불집회와 같은 저항운동,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보수정권의 국가통제력 회복을 위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다. 실용과 성장을 강조하던 현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차별금지 등 정치적 수사(修辭, rhetoric)를 통해 높은 정치적 도덕성을 주창했던 참여정부에 비해 정치윤리의 차원에서 열등한 것으로 비교되었다. 이와 같은 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 정권은 그 이전 정권의 최고 권력자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현존하는 최고 권력의 위세를 높이려 한 듯 보인다. 부패척결의 명분을 걸고 국가기구를 동원한 상대권력의 억압이라는 역대 정권이 사용해 왔던 후진적 정치관행으로 회귀(回歸)하였던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보편적 도덕성을 앞세워 정당성을 얻었던 참여정부의 수장(首長)으로서 역설적이게도 부정부패의 죄목으로 수사대상이 된 전직대통령으로서는 개인의 명망은 물론 몇 십 년간의 투쟁을 거쳐 이룩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 시민사회 등의 가치와 제도가 무너지는 자괴감과 분노의 감정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자신은 물론 그 보편적 가치들이 꺾박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려 하였다.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여론과 감성의 정치 문화가 역

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념적 가치가 제도에 우선하는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유교적 이념은 왕권(王權)이 발현되는 근거이며 동시에 왕권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반공(反共)국가는 그 어떠한 정치적 반대여론과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권위주의적 정권에 도전하는 일부 세력은 제도권 밖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지난 군부정권 시절에 '재야(在野)'라는 매우 독특한 정치세력과 정치문화를 형성해 왔다.¹³⁾ 재야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제도적 차원(특히 법적 장치)에서 완화되고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이른바 '국민정서'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유연한, 비제도적 영역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 여론은 '민심(民心)'이라는 추상적인 정서(情緒)의 추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정권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동조자로서의 언론미디어는 그들이 선호하는 체제와 정략, 정치권력의 성격을 반영하는 자신들의 '프레임(frame)'을 설정하고, 사회현상을 그 프레임으로 담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사설이나 기획보도의 내용 및 기사보도 등의 형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으로 사회현상을 과장, 침식, 왜곡함으로써 일정한 담론을 생성, 유포하는 역할을 한다.¹⁴⁾ 전직대통령의 자살에 대해서도 각 언론은 그들의 평소 프레임으로 의미 해석을 내리고, 이를 다양하게 담론화하고 있었다.¹⁵⁾

사회정의의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 개인이 타자로부터의 억압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 실행하는 자살은 특정 집단에 의한 구조적 타살로 재해석되어 일반적으로 '거룩한 죽음'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한다. 대부분 개인적 자살 행위가 사회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 의미해석을 받는 반면, 조직이나 집단의 명분과 이해를 위한 자살은 헌신, 살신성인(殺身成仁) 등의 긍정적 의미해석을 부여받는다.

13) 이기호,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 네트워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

14) 참고로 한국사회의 계층 양극화 담론과 각 언론미디어의 프레임 담론에 대한 연구로 김왕배,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언론과 사회』 17권 3호(2009), 78-115쪽을 참고할 것.

15) 예컨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그의 자살이 갖는 긍정적 사회적 의미를 확산시키려 하는가 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부패에 연루된 한 개인의 자살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 자살은 부정한 집단에 의한 타살로 간주되고, 위엄과 경의를 받을 만한 명망가의 자연사적 죽음과 동일한 지위(때로 그보다 더 높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어떤 죽음은 사회운동을 촉발시키거나 세력을 응집하는 ‘상징(symbol)’으로 등장한다. 사회적 의미를 응축하고 있는 상징은 죽음의 순간에 만들어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례를 통해 기억되고 그 의미가 재생산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죽음에 대한 기억은 공공영역에서의 의례를 통해 후대에게 그 의미가 전달된다. 따라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의례를 집행하고 기억을 재생하는가, 혹은 기억을 말소·왜곡하는가가 기억정치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의 죽은 조상에 대한 기억은 제사의례를 통해 재현된다. 후대인들은 제사를 통해 조상의 실체와 가족의 유대를 점검·확인하고, 가족의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제사는 단순히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가족구성원들을 ‘불러 모으고’, 집행관(장자)의 권력을 확인하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위계와 질서를 구축하면서 가족네트워크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1987년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이한열의 죽음은 당시 민주화투쟁의 상징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였다. 그의 죽음은 반정부 시위자들과 반정부 세력들을 한 공간으로 집합시킴으로써 ‘저항연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결국 당시 정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접선거 개헌을 수용하게 하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이한열의 죽음은 민주화의 상징으로 재생되었고, 그의 장례식은 100만 인파를 모으는 자원동원의 의례가 되었으며, 그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의례는 민주화투쟁의 의미를 지속시키려는 산자들에 의해 지속되었다.¹⁶⁾

전직대통령의 자살 역시 죽음의 정치적 상징을 갖는다. 그의 자살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저항’의 사회적 의미로 기호화된다. 이러한 상징구성과 기호 각인의 과정에는 이해관계를 달리는 사회세력들(예컨대 현 정권과 그 지지층, 특히 주류 기독교 세력과 보수층, 그리고 전(前) 정권과 그 지지층, 진보층 등)이 서로 긴장하고 대립하였다. 전자의 집단은 그 상징적 의미를 폄하하거나

16) 하지만 점차 그 의례의 열기와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멸되고 잊혀져갔다. 과거의 상징은 국면에 따라 그 의례와 기억의 정도가 규정된다.

축소하려 하였고 후자는 그 의미를 확대하려 하였다.

한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매우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른바 '추모정국'으로 불리는 국면 속에서 500만 이상의 인파가 조문을 했고, 통곡의 장면들이 중계되었으며 애도와 추모, 분노와 슬픔 등의 이른바 국민정서가 제도적인 법적장치와 선언을 압도하고 있었다. 장례의례는 민주화투쟁의 집결지였던 서울광장에서 전통적인 '진혼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진혼제는 자연, 운명, 혹은 타자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의례이다. 진혼제 의례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분명히 한다. 그 의례를 주도한 집단은 전직대통령의 자살은 비민주주의적인 현 정권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이를 통해 현 정권의 부도덕하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려는 파생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장례의례는 '억울함'과 '슬픔'의 감정적 전이를 확산시키면서 분산된 지지층을 결속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기존 보수정권의 핵심 축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지지부진하던 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다시 거론되고 파편화되었던 진보세력들이 다시 결집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⁷⁾ 전직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죽음의 정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 익명적 집단동반자살¹⁸⁾

최근 한국사회의 연쇄적 집단자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역 펜션에서 1주일 새 8명 동반자살”,¹⁹⁾ “같은 안티자살 사이트서 만나 보름 새 7명 자살”,²⁰⁾ “인터넷서 만난 남녀 동반자살”,²¹⁾ “인터넷 동호회 여성 3명 동반자살”²²⁾ 등의 제호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지난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집단동반자살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다.²³⁾

1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의 이른바 진보세력의 결집현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타살 이후 등장한 '보나파르티즘적 반동' 현상과 대비를 이룬다.

18) 이 장은 필자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소식지 시사 논단(2009.3) web에 올린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19) 《조선일보》, 2009년 4월 16일자.

20) 《조선일보》, 2002년 5월 6일자.

21) 《조선일보》, 2002년 6월 3일자.

22) 《조선일보》, 2003년 5월 22일자.

집단동반자살은 사전적 의미에서 '많은 수의 사람이 동일한 목적 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집단자살은 주로 컬트(cult)형태의 종교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8년 가나의 존스타운에서 무려 914명이 사망한 '인민사원' 사건이나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아고(Sandiego)에서 40여 명의 신도가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천국의 문(Heaven's Gate)' 종교집단 자살사건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른바 '오대양 집단자살사건'으로 1987년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오대양대표와 추종자 32명이 그 공장의 천정에서 집단자살한 경우이다. 어느 특정한 종교적 신념과 생활방식을 공유하면서 극히 폐쇄적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외부세계에 그들의 삶이 노출되거나 폭로되어 극단적인 위협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광신적인 종교집단과 달리 한국에서 발견되는 집단자살로는 가족동반자살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가족동반자살의 경우 대개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타살 후 자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가족동반자살은 한국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집단적 가족주의, 즉 부모와 자식이 운명공동체라는 의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²³⁾ 개인주의가 발달된 서양사회에서 부부와 자식 등 가족구성원은 각각 나무와 등걸로 묘사된다. 즉 가족은 그 울타리 속에 개개인의 객체들이 서로 영켜 붙어 있다가 다시 각각의 객체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들의 결합이다. 이에 반해 동양, 특히 한국인의 가족관은 성원들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나무줄기와 뿌리로 묘사된다. 가족구성원들은 개개별로 독립하지 못하고 삶과 죽음의 전 과정을 공유한다(공유해야 한다)는 집단적 사고가 강하게 배여 있다.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목숨을 버리는 가족동반자살은 한국사회가 아직도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이며 운명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가부장주의적 집단주의가 매우 강하게 남아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가족동반자살의 집단자살 유형보다는

23) 이밖에도 「20대 남녀 5명 동반자살」, 《조선일보》, 2004년 3월 23일자; 「인터넷 채팅서 만나 동반자살」, 《조선일보》, 2005년 4월 7일자.

24) 송재룡은 이를 가족주의의 습속으로 표현한다. 송재룡,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사회 이론』 가을·겨울호(2008), 124-162쪽.

익명적인 타인들이 서로 모여 동반자살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원래 종교적 컬트나 가족의 집단자살은 오랫동안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공유한 폐쇄적 집단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서로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오로지 '자살'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몇 번의 클릭으로 접속되는 사이트(website)를 통해 모이고, 단 몇 시간 정도의 교제를 나눈 후 목숨을 끊는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설명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발견되었던 집단자살의 몇몇 경우는 뒤르케임이 유형화한 이타적 자살의 속성으로 해명해 볼 수 있다. 이타적 자살은 집단에 대한 통합도나 헌신도가 지나치게 높아 생기는 경우인데 종교의 포교를 위한 순교자들의 죽음이나, 민족 또는 민중해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 투쟁가들의 자살 행위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타성이라는 언어의 긍정성과 달리 집단자살의 많은 경우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일본의 천황과 민족을 위해 자살공격을 감행한 가미가제 특공대들의 행위나, 조직의 신념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끊은 특정한 종교적 컬트의 집단자살 행위는 개개인의 결정과 자율을 마비시키고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강요된 죽음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비록 집단을 위한 이타적 죽음이기도 하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야 어떻든 사회집단에 대한 통합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이러한 유형의 집단자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집단동반자살은 그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통합도가 지나치게 낮거나(이기적이고), 사회적 도덕의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아노미적 자살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삶의 지향점을 보급하는 가치체계로서의 도덕이 진공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아노미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제도와 가치체계가 급속히 흔들리고, 이를 대체할 만한 사회적 규범이 뒤따라지 못할 때 발생한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집단동반자살은 '도덕의 진공'이라는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룩했고, 이 기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 국가에 의해 주도된 산업화는 성장의 신화를 이룩하는 대신 시민사회를 떠받드는 시민적 덕목으로서의 사회규범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적 상승의 욕구'라는 희망이 힘든 삶의 조건들을 극복하게 하는 유인적 가치의 역할을 했다. 비록 수단과 절차를 무시하는 목표달성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열심히 일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속적 희망이 하나의 규범이 되었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무한경쟁과 무한이동, 효율의 극대화와 시장의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개개인 삶의 조건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기보다는 분절시키는 유연화를 추구한다. 이 유연화는 바로 사회의 불안정화로 이어진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비정규직이 확산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화가 높아진다. 양극화 담론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자원배분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져 이제는 일하면서도 가난한, 가난의 뒷에 발목이 잡혀버린 노동빈곤층이 등장하고 이들에게는 사회적 상향의 세속적 희망마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목표달성지상주의가 낳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규범으로서의 연대의식은 매우 취약해지고 있는 반면, 무한경쟁의 '독식' 문화로부터 배제된 층들은 쓰라린 패배의 경험 속에 삶의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다. 사회적 구별짓기의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외와 절망은 이미 산업화 시대의 수동적 대중들이 느끼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깊고 높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삶의 조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준 것은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연고주의였다. 비록 비합리적이고 때로 비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연고주의는 상호부조(相互扶助)적 기능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가족적 연고주의 유대마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직계 핵가족 단위의 경쟁만이 더 심해지고, 이혼, 저출산, 고령화 등과 함께 가족해체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족의 양육기능과 부양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의리와 신의, 동정 등의 연고적 가치와 유대 역시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 한(韓)민족 담론은 무성하나 다(多)문화주의를 발생시키는 글로벌리즘 현상으로 인해 우리

의 정체성은 다중화되고 또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우리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십여 년 전 이른바 'IMF 사태' 때만 하더라도, '국란(國亂)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등 '민족적 대통합의 놀이판'이 벌어졌으나 이제 그와 같은 집합감정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무한경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쳐 있고, 경쟁으로부터의 탈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삶의 초조함과 불안은 더욱 높아지며 사람들은 늘 빼앗긴 듯한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더욱 불안하다. 그들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해 유년기부터 무한경쟁을 치루고, 대학 이후 실업에 대한 공포로부터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량소비의 시대를 넘어 일상을 소비의 미학으로 휘감은 소비자본주의 시대는 찰나적이고 즉흥적으로 가공된 비주얼(visual)의 이미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층의 감성을 열등감으로 자극한다. 한국사회는 '분장사회(扮裝, make-up society)'라고 할 만큼 성형을 통해 미모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육체를 자본화하는 사회로 묘사되기도 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기대 역량의 사회적 평균치가 높아져 그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루면서 몹시 피로해져 있다. 피로와 불안은 극도의 신경증적 우울증이나 강박관념 혹은 무기력을 갖게 한다.

여기에 순간적인 클릭(click) 하나하나에 현존(現存)과 부재(不在)가 영상화되는, 무한대적으로 부유(浮遊)하고 있는 정보기호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인터넷 세상은 즉각적이고 찰나적인 판단과 삶의 양식을 부추긴다. 세계는 문명의 발달과 탐욕으로 인해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타나토스(tanatos, 죽음의 본능)'가 삼투되어 있고, 이미 양자 세계대전과 여기저기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통해 생명의 가치는 급속히 평가절하되어 있다. 사람들의 목숨놀이를 담보로 흥미를 야기하는 영상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전쟁에 대한 실시간적인 중계, 독버섯처럼 파고든 인터넷 폭력게임은 이미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윤 앞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시민적 덕목이 지체된 한국사회, 즉 예나지금이나 성장과 땅값 상승 등 물질적 가치를 최고의 목표로 지정하고 있고, 타자 배려와 사회연대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성찰은 더욱 희박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생활안전사고들, 이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들이 총체적으로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죽음을 바로 옆 지근거리에서 유혹하는 인터넷 자살카페가 사람들, 특히 청소년층을 불러 모으고 있다. 불안을 야기하는 현대사회의 여러 조건들이 자살의 구조적 유인요소라고 한다면 이 죽음을 추동하는 인터넷 자살카페는 집단동반자살의 매개요인 노릇을 하고 있다.²⁵⁾ 깨진 채 방치된 건물을 보는 순간 범죄의 유혹을 느낀다는 깨진 창문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살카페는 이미 무기력하고 불안에 싸여 현실과의 단절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쉽게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²⁶⁾

3. 해체사회형 노인자살

최근 또 하나의 주목을 끄는 자살은 노인자살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년 전부터 OECD국가군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살률 중에서도 노인자살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2004년 기준)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명)과 그리스(6.3명)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²⁷⁾. 이 중에서도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의 노인 등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배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빈곤층 노인들의 자살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중산층 노인층으로까지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²⁸⁾

이미 한국사회의 인구담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와 저출산을 심히 우려하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6년 한국인

25) 참고로 「인터넷 자살 카페 30대 운영자 입진, 《조선일보》, 2009년 4월 27일자.

26) 물론 왜 개인자살이 아닌 집단자살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더욱 정교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27) 참고로 2000년 중·후반부터 한국사회의 언론에서는 노인자살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로 〈불안한 사회, 허물어지는 노년층〉, SBS 뉴스추적(2006.11); 「한국노인, OECD국가 중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 《조선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조선일보》, 2008년 5월 13일자 등이다.

28) 인천지역의 빈곤노인층을 연구한 인류학자인 Jeffrey Stark 씨에 의하면 “상당수의 빈곤층 노인들은 언젠가 자신이 자살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약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말한다.

평균수명은 79.1세로 이미 OECD국가의 평균수명(78.9세)을 넘어섰고, 2000년 65세 인구비중이 7.2%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그 인구가 14%를 상회하여 초(初)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예상보다 더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노인자살의 상관성여부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밝혀져야겠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이 두 경향성이 공존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대전이와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정책 등이 요구되는 시점에 들어서 있다.

노인자살은 직장으로부터의 은퇴(경제 활동의 소멸), 가족관계의 해체와 소원(자식의 분가와 배우자 사망), 외부 커뮤니티 활동의 제약과 소외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즉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에 따른 상실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활동 등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긴장도가 높은 사회적 활동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구구성층이다. 사회 활동의 축소 혹은 마감은 주변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자신 존재감의 상실을 의미한다.²⁹⁾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주의, 연고주의와 효(孝), 유교주의적 경로사상(敬老思想)으로 노인우대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그만큼 변화의 걸음이 빠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가족을 비롯한 연고주의적 결속이 지배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해 왔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는 효(孝)를 근간으로 하는 교환관계, 즉 자식들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후를 보장 받는' 보험적인 호혜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³⁰⁾ 유교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원리는 부모와 자식을 위계적으로 통합·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해 왔고, 이러한 가족주의적 원리는 비단 가족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경로사상'은 익명적 관계 속에서도 '나이'에 기반을 둔 서열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하였고, 그 규범적 원리는 이미 유교에서 강조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내용 속에 잘 반영되어

29) 김형수,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23권 2호(2000), 167-187쪽; 유정균,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가족불안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1995-2005」, 『한국인구학』 31권 2호(2008), 21-44쪽.

30)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1998, 문학과 지성사).

있었다.

가치체계에서뿐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근거는 가족주의적 연고에 있었고, 노인에 대한 사회안정망은 가족 영역에서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가족주의의 연고적 속성이나 가치관 역시 급속히 변해왔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 중심의 대가족이나 동족 부락의 생태적 기반은 급격히 와해되어 가족의 형태는 방계형(傍系形) 대가족으로부터 직계손(孫) 위주의 핵가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한편, 아울러 가족의 기능과 역할 역시 급격히 쇠퇴하였다. 가족의 사회자본은 계급 재생산에 여전히 중요하고(특히 상류계급에서는 가족 간의 리니지(lineage)가 계급 재생산에 핵심이다), '교육을 통해 자식의 사회적 성공'을 희망하는 과잉 교육열, 노후의 보험적 자원교환의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존속하지만, 그 범위와 기능, 가치관은 전통사회의 그것과 매우 다르게 변하고 있다.

노후보장의 자식의존도의 기대치와 현실적 기회가 낮아지고, 노후의 보장이 개인보험이나 연금, 저축 등과 같은 사회적인 공적영역에서 확립되어 가면서 가족의 안정망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노동력 재생산비(의식주를 비롯하여 교육, 여가 등에 소비되는 사회적 평균비용)의 증대로 가족의 노인에 대한 부양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면적(對面的)인 공동체 안에서 노동력을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생산 및 배분을 하던 농업경제와 달리 임금이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보존하는 대부분의 도시가구에서는 생활비용의 증대와 함께 본인과 자녀 외의 노인부양은 현실적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함께 효(孝)와 같은 가치관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유교적 효의 가치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 가치로 작동하여 왔고, 그 유산은 아직도 가부장적 형태로 남아 있긴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이러한 가치는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이러한 효 가치의 퇴색은 집단으로부터 자신의 주체성을 확장해 가는 근대성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유교적 가부장적 가족집단으로부터 매몰되었던 개인들이 근대화와 함께 점차 자신의 삶의 영역과 삶의 전략을 수립해 가는 개별화된 '주체적 나로 분화하는 지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을 위해(특히 부모부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가치와 태도가 강하게 분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인층은 매우 역동적인 ‘소용돌이’의 삶을 살아 온 세대이다. 가족집단주의에 자신을 정체화시킨 세대로서 효와 경로사상의 규범에 의해 사회화되어 그들의 부모에 대해 전통적 방식의 부양을 담당했었고,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세대이다. 정치적으로는 일제 식민주의로부터 해방, 한국전쟁, 산업화 등 격동의 시대에 노출되었던 세대이며, 경제적으로는 한때 세계에서 최빈국의 시민으로서 절대빈곤을 경험하며 살았던 세대이다. 생존형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열망, 그 신화를 쫓아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를 지지했던 세대이며 동원자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는 매우 취약한 사회안정망과 가족주의 연계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삶의 조건들, 때로 서구형 포스트모던적인 가치와 생활규범이 닥쳐올 때 무엇보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더욱 냉정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들은 죽음에 가까운 세대이다. 죽음의 사회적 기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점차 주변화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공공영역으로부터 사라진 ‘결시(absent) 혹은 부재’로 규정한다. 죽음에 대한 논의도, 죽음의 의미도, 죽음의 기능도 점차 축소되며 이는 효율성, 합리성, 계산 등을 요지로 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확대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죽음은 낭비, 소용 없는 것, 사라짐, 비효율,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모더니티의 특징은 개인의 삶의 전략을 스스로 수립해야 하는데 죽음은 이러한 삶의 전략수립을 방해하는 장애물 혹은 위협요소로 간주된다.³¹⁾ 죽음에 가까운 노인들은 바로 이러한 장애물로 인식되어 주변화된다.

노인을 주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사회의 저돌적이고 목표달성 지상주의가 낳은 경박한 자본주의 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모든 대상을

31) 개인화(개인의 주체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또한 전통의 와해와 함께 발생하는 불안정, 심리적 혼돈, 유의미한 인간의 실체성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한다(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엘리아스는 현대인들은 실체를 위협하는 죽음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이를 더욱 반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죽음은 스스로의 주체화된 삶의 역량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현대인들은 ‘죽어가는 사람들과의 접촉마저도 꺼리게 된다. 모든 인간은 이제 서로 파편화된 채로, 서로 고립된 채로 죽기 마련이다. 교회의 목사보다는 오히려 병원의 의사가 오히려 죽음의 절차와 의례를 담당하면서 내세를 강조하는 종교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환가치로 환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정신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명확히 구별한 후 후자를 감금시키는 전략적 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³²⁾ 합리성의 범주에는 시장가치(경제적 가치), 효율, 계산성 등의 개념이, 비합리성의 범주에는 온정(溫情), 비효율, 비계산성 등을 포함하는데 후자는 ‘쓸모없는 것’, ‘배제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간주되고 이들을 배척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들, 공간들이 발생한다. 노인은 ‘비경제 활동인구이며, 비생산적인 집단이고 비효율적 집단’으로 언급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곧 낭비로 간주된다.³³⁾ 목표지상주의이며 저돌적인 토건주의적 산업화는 당장(當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즉자적 형태의 자본주의 정신과 전략을 만연시켜 왔다. 즉 계층과 세대를 통합하는 사회연대와, 소수자 등에 대한 인정과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현대자본주의가 죽음을 주변화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가까운 노인세대를 급격히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죽음은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현상이며, 그 죽음에 가까운 노인들 역시 장애대상으로 간주된다. 이 경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대(先代)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부와 사회적 조건들은 후대에 의해 쉽게 잊혀진다.³⁴⁾ 오로지 물질주의적 성장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에서 죽음은 현장의 뒤편으로 숨겨져야 할 대상이며 그 죽음에 가까운 노인 역시 낭비적 존재라는 사고가 확산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급증하는 노인자살은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사회변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자살은 현재화되는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급증하는 노인들의 자살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적 증후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로 ‘거론되지 않는 사건’, ‘외면되고 있는 사건’인 것이다.

32) 푸코가 분석한 정신병동의 출현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참고로 최선영, 「자살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근대적 자살이해에 대한 사회이론적 논의」, 『사회학이론』 12권(2008).

33) 장애우 등과 같은 소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육아비용에 대한 사회적 투자조차도 낭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34)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이 노인세대들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고 오히려 ‘비실대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기생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노인들이 소유한 부를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실버산업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IV. 요약

자살은 스스로의 자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자살의 유형과 빈도는 한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탈행위로서의 자살률의 증가는 그만큼 사회구조가 병리화되어 있고, 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 조명해 본 전직대통령의 자살, 낯모르는 익명적 타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집단동반자살, 급증하는 노인자살 등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해체를 알리는 사건이며 신호이다. 전직대통령의 자살은 여전히 후진적인 정치문화와 정치세력 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집단동반자살은 집단성과 익명성이 교묘하게 조합되어 나타난 정보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노인자살은 가족해체와 사회안정망 상실을 초래한 고도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현대 한국사회의 내재적 구조의 특징적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다.³⁵⁾

일반적으로 사건이 예기치 않은 뜻밖의 현상으로서 사회적 주목이나 긴장, 감정동요, 주의환기 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위 세 유형의 자살은 현재 한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높은 사회적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살들의 유형은 서로 다른 동기과 배경,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의 파급효과인 주의환기나 긴장, 감정동요 등의 정도나 연계적인 후속 사건도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전직대통령의 자살은 집단규범과 이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명분형의 성격이 강하다. 그 자살은 주의환기와 긴장, 그리고 자살을 바라보는 타자들의 감정동요를 광범위하게 촉발시킨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고, 동시에 연계사건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또한 최근 우리를 경악에 빠뜨렸던 연쇄적인 인터넷 집단동반자살은 그 연령구성원이 주로 젊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무한경쟁과 압박으로

35) 물론 자살과 같은 병리적 현상이 확산되면 사회는 또한 이에 대한 반대 급부적 메커니즘을 보이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종교는 여전히 어떠한 자살도 용인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사회의 자살에 대해 많은 종교기관들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자살 예방 등에 대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전개하고 있다.

비롯되는 아노미적 상황이 야기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유독 빈번하게 발견되는 가족동반자살이 고착된 집단가족주의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전혀 안면이 없던 익명의 타자들이 모여 가상(假性)집단(pseudo-group)을 결성하고 목숨을 버리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병리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자살사건의 배후에는 또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정보기술사회로 도약한 한국사회의 한 부정적 측면, 즉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의 부정적 그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노인층의 자살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역시 한국사회 구조의 한 특징적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효(孝)와 경로사상(敬老思想)의 유교적 가족연고주의가 강하다고 간주되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사회해체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살유형은 모두 특수한 자기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바닥에는 공유된 발생구조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 유인요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달성주의적인 저돌적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사회구조의 분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가진 집단들이 등장하고, 민주주의의 결실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의 유산인 후진적 정치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가족주의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가치나 규범이 발달되지 못했고, 따라서 타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발전이 미흡하며,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안정망의 취약함, 그리고 노인층을 비효율적 장애요인으로 배제하는 경박한 자본주의 정신 등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자살 행위자들이 분노, 수치, 모멸, 체념, 좌절, 소외감 등 다양한 감정과, 나아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과 같은 심리적 병리 증상을 안고 있다면 살아 있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감정의 전이가 발생한다. 자살은 가깝게는 가족구성원, 동료, 그리고 멀게는 익명적인 일반 사회구성원 등 특정 대상에게 슬픔, 분노, 죄책감 등 부정적 감정을 전이시킨다. 자살이 만연하고 그 충동이 확산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불안사회로의

해체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부정적 감정이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복합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사회해체의 한 조짐이라고 한다면, 사회해체의 조짐들에 대한 예방적 대안과 치유적 대안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숙한 문화형성을 통해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의 유산인 후진적 정치문화의 규범을 일소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주로 20대들이 중심이 된 인터넷 동반자살은 지나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속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규범적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자살의 경우 생활조건은 물론 심리적 네트워크와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고, 특히 커뮤니티 수준의 지원연계망 확립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대안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정인, 「정치·죽음·진실: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권 3호, 2002, 7-25쪽.
- 김병철, 「한국 언론의 자살 보도에 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Speech & Communication』 8권, 2007, 252-275쪽.
- 김성환, 「집단지살의문제점」. 『기독교사상』 110권, 1967, 102-107쪽.
- 김왕배,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언론과 사회』 17권 3호, 2009, 78-115쪽.
- 김현순,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권 1호, 2009, 203-225쪽.
- 김현주, 「수험생의 자살 및 가출 충동 관련요인: 성적, 자기평가, 부모의 지원」. 『가족과 문화』 1권, 1999, 127-148쪽.
- 김형수, 「노인자살의 이해와 일차적 예방」. 『한국인구학』 23권 2호, 2000, 167-187쪽.
- 노혜린·김형태·이종익,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권 1호, 2005, 5-34쪽.
- 박경애, 「성(Gender)과 자살」. 『가족과 문화』 1권, 1999, 149-171쪽.
- 박경애·이재규·권혜수, 「청소년 동반자살」. 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1』, 1998.
- 박인성, 「자살의 논변」. 『철학연구』 89권, 2004, 175-194쪽.
- 박종순·김순덕·지선미·이제숙, 「우리나라 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25권 2호, 2003, 84-91쪽.
- 박지은·정영,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발전연구』 10권 1호, 2005, 39-59쪽.
- 박형민, 「자살 행위에서의 '소통적 자살'의 개념화: 1997-2006년 유사분석을 통해 드러난 자살 행위의 '성찰성'과 '소통지향성」. 『사회와 역사』 79권, 2008, 129-160쪽.
- 송재룡,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사회이론』 2008년 가을·겨울호, 124-162쪽.
-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이론검증을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권 4호, 2004, 33-71쪽.
- 신상진·조영태, 「사회적 자본과 자살충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권 3호, 2007, 35-49쪽.
- 오진경, 조영태, 김창엽, 「2000년 우리나라 성인자살자의 인구사회적 특징」. 『보건과 사회과학』 18권, 2005, 191-210쪽.
- 유경원·노용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살률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18권, 2007, 59-78쪽.

유정균, 「노인자살률의 지역별 편차: 가족불안정의 영향을 중심으로, 1995-2005」.

『한국인구학』 31권 2호, 2008, 21-44쪽.

윤민재,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 의문사형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2007, 1113-1128쪽.

윤정현, 「1920년대 전후 한국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고: 기녀의 자살을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13권, 1986, 517-534쪽.

은기수,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권 2호, 2005, 97-129쪽.

이귀행, 「자살의 심리학적 측면」. 『생물치료정신의학』 10권 1호, 2004, 11-14쪽.

이기호,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사회운동 네트워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이미숙,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권, 2007, 153-175쪽.

이정윤·허재홍,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위험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권 2호, 2003, 85-95쪽.

정영순, 「한국 고등학생들의 부모형태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4권 3호, 2001, 346-374쪽.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주리에·권석만, 「인터넷을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분석: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심리과학』 10권 1호, 2001, 93-115쪽.

채오병, 「사건사의 인식론과 방법론」. 『사회와 역사』 제83집, 2009.

천선영, 「자살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근대적 자살이해에 대한 사회이론적 논의」. 『사회와 이론』 12권, 2008, 293-325쪽.

최병목·강대기·박태영·손연기, 「학생자살의 원인분석 및 방지방안 연구: 1998-2000년 경기도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집』, 2001, 369-392쪽.

최준영,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관련 태도」. 『사회 연구』 14호, 2007, 223-238쪽.

홍성철·김문두·이상익, 「사회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4호, 2003, 249-271쪽.

Abrams, Philip, *Historical Sociolo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2.

Durkheim, Emil., *The Suicide*. Free Press, 1984.

Griffin, Larry J., "Temporality, Events, and Explanation in Historical Sociology".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0. 1992, pp.403-427.

Sewell, William, Jr., "A Theory of Structure: Duality, Agency, and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1, 1992, pp.1-29.

국 문 요 약

비정상적 일탈행위로 간주되는 자살은 그 사회의 해체의 정도와 가능성에 대한 척도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유명 연예인들의 집단 자살과 인터넷을 통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동반자살, 그리고 전직대통령의 자살 등으로 큰 충격에 쌓여 있다. 전체적인 자살률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자살률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여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세 유형의 자살을 분석하고 있다. 그 세 유형은 전직대통령의 자살, 인터넷 집단동반자살 그리고 고령노인들의 자살이다. 우선 이른바 ‘죽음의 정치관’을 불러온 전직대통령의 자살을 대의명분형 자살로 유형화하고 이를 후진적인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와 규범,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수단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두 번째는 인터넷 집단동반자살은 196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보고되고 있었던 가족동반자살의 분화된 형태로 보고, 한국사회의 저돌적이고 급속한 산업화와 경쟁구도가 낳은 아노미의 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세계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이다. 유교적 가치인 효와 경로사상 등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가족주의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반면, 공적인 사회적 안정망의 미흡으로 노인들이 쉽게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세 유형의 자살은 현 시대의 한국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직대통령의 죽음은 여전히 후진적으로 남아 있는 정치문화, 인터넷 집단자살은 가족형 결속주의와는 또 다른 측면의 집단성의 출몰과 아노미 현상, 노인들의 자살은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가족해체와 지원망 결여라는 사회적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건’으로서 이 세 유형의 자살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 내면, 특히 ‘규범과 제도의 해체’라는 측면을 들여다본다.

투고일 2010. 4. 12.

수정일 2010. 5. 24.

게재 확정일 2010. 6. 9.

주제어(keyword) 자살(suicide), 사건(social event), 아노미(anomie), 인터넷 동반자살(internet group suicide), 노인자살(suicide of the elderly), 전직대통령의 자살(the suicide of former president), 죽음의 정치(the politics of death)